

여수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속도

박물관 내년 개관...유물 수집중

293억원 들여 웅천동에 건립

시립미술관 2026년 개관 예정

여수시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사업이 새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제1의 '역사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수시립박물관이 내년 개관할 예정이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여수만의 유적이 웅천동 이순신 공원 바위산 전망대 앞에 세워진 여수시립박물관에 전시된다.

여수시립박물관은 국비 37억원, 도비 78억원, 시비 178억원 등 293억원을 들여 3만 3000㎡의 부지에 5610㎡, 지상 1층 건물로 지어진다.

시는 숙원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쳤으며 2019년 5월 문화체육부 국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

이후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1단계) 승인을 거쳐 박물관 건립을 가시화했다.

본격적인 준비과정을 거침에 따라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초 공사에 들어간다.

시립박물관은 건축설계 및 전시 제작 설치 공모 결과 기존의 이순신 공원시설, 지형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이 돋보이고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시대를 잘 표현한 전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2019년 9월부터 유물 기증 운동을 벌여 장서각 소장본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오형욱의 '여수총쇄록 필사본'과 전라좌수영 수군 훈련 교본 집인 '수조홍', 여수 무형 문화유산 영상과 구술자료 등 총 9200여 점의 유물을 모았다.



여수시립박물관 건축설계 및 전시 제작·설치 공모 당선작.

여수의 고고·역사·미술·민속, 근현대사, 학교, 산단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한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유물 기증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여수시립박물관과 함께 시립 미술관 건립도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수시립미술관은 웅천동 예술마루 망마공원 내 연면적 6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총 280억 원(도비 40%·시비 60%)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며 부지조성비는 별도로 추진된다.

시는 2021년 3월부터 1년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친 뒤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민공청회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의 등을 통해 미술관 건립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2월 건립 부지 최종 확정 설문조사에서는 망마공원 57.5%, 남산공원 42.5%가 응답해 망마공원이 낙점됐다. 이후 3월 용역 최종보고회 개

최에 이어 10월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박물관과 함께 추진중인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다.

오는 1월 31일까지 문체부에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 예정이며, 5월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7월께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축공사가 하나씩 이뤄질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시립박물관 건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박물관에 더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남해안 중심도시로 여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

여수시민학교 '좋은 정책상' 수상

여수시는 지난 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전국의 우수한 평생교육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타 기관에 귀감을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민학교'는 민주주의, 환경, 사회적 경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지역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운영한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여수시민이 성숙된 선진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시민학교 운영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 화태~백야 연도교 건립 탄력

국비 671억원 반영...2027년 완공

여수시 남면 화태도에서 화정면 개도, 제도, 백야도를 연결하는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국도 77호선)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국도 77호선)는 올해 국비 671억 원이 반영돼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총 연장 12.9km, 2차로 도로로 아치고, 현수교, 사장교 등 해상교량 4개소가 건설되며 사업비는 5319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2개 공구로 나뉘어 ▲1공구 남면 화태도에서 화정면 개도까지 6.05km 구간은 ㈜포스코건설, ▲2공구 화정면 개도에서 백야도까지 6.91km는 코오롱글로벌(주)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 진행은 ▲1공구인 화태-백야 1교는

우물통 기초를 제작 완료하였고, 작업장 등으로 활용될 물양장은 조성 중에 있으며, ▲2공구인 개도-백야는 현장타설 말뚝 기초 공사를 시공 중에 있다.

여수시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전 화태-백야 양방향 임시 개통을 위해 2022년 4월 T/F팀을 구성해 예산 확보, 보상 지원, 민원 해결 등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0년 개통한 화양-고흥 구간과 백야-화태까지 이어지는 일대본브릿지(11개의 교량)와 백리섬섬길이가 완공되면 다도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 해안 드라이브 코스'가 조성될 것"이라며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1대 늘려 5대 운행

관내 이용 요금 최대 1000원

곡성군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총 5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행한다.

이번 증차로 콜택시 운행 대수가 기존 4대에서 1대가 늘어나 고객들의 이용 대기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이다.

콜택시 이용 시간은 평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운행지역은 관내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남원, 광주, 전남도 전역이다. 평일에는 전화만 하면 관내외 배차가 되지만 휴일에 관외로 이동할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관내 이용 요금은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이다.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 기준으로 부과된다.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약자로 등록해야 한다. 교통약자 등록 방법 및 이용 문의는 전남 광역이동지원센터(061-287-8341) 또는 곡성군 이동지원센터(061-363-82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콜택시 확대 운영을 통해 관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전남도 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와 협약을 맺고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장애인협회에서는 운행 및 관리 등 곡성군 특별교통수단의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받아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보성 득량면 문화복지센터 준공

보성 득량면 문화복지센터가 지난 20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어졌으며 연면적 855㎡에 다목적 실과 공동주방, 동아리방, 교육실 등으로 구성했다.

〈보성군 제공〉

여수 여문공원 '제2호 아이나래놀이터' 개장

13종 16개 무장애놀이시설

물놀이 시설 등 사계절 놀이터

여문공원 '제2호 아이나래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제2호 아이나래놀이터'는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등 13종 16개의 무장애놀이 시설과 물놀이기구, 화장실, 샤워실, 테크웨어까지 갖추고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동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로,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이용



할 수 있다.

물놀이 시설은 7월~8월만 운영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동동 아이나래 놀이터의 성원에 힘입어 조성된 이번 '제2호 아이나래 놀이터'는 아이들이 사계절 자연에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물놀이 시설까지 갖췄다"라면서 "아이나래 놀이터가 아이 기르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문공원 아이나래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6월 착공해 12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오는 2023년 여문공원 1구역에 숲속 놀이터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지역 테마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전남 유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사업비 400억원 확보

보성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지역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어촌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복지, 문화, 돌봄 등 생활서비

를 맞춤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 분야로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민간투자 100억 원을 포함한 총 400억 원이 투입된다. 민간 투자 사업을 유치해 신규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등 어촌 재정 지원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보성군은 수산유통플랫폼·전망공간, 울포프름나드, 귀어귀촌·청년 창업거리, 어촌마을 거리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겠다"며 "보성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양분야 투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주요한 역할을 해줄 대형 공모사업을 유치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명창부 경연모습.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수상

보성군 대표축제인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2년 연속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축제예술·전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매년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온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고수 경연대회,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체험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 대한민국 국악 및 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을 비롯해 정관진, 박춘성, 성우향, 조상현, 성장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

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대한민국 국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매년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하여 전국경연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잇는 데 힘쓰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서편제 보성소리의 분향으로 보성은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성 있는 판소리·고수 분야의 대표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25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4월 29일부터 열리는 제11회 보성세계차차스프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